

“불모지 없다”...광주 ‘성장’·전남 ‘무한 발전’ 확인

제107회 동계체전 폐막...광주 12위·전남 9위 선전

광주, 동·하계 종목 연계 육성...광주체육중컬링 첫 메달 성과
전남, 유·소년 무더기 다관왕...상위권 도약 탄탄한 기틀 다져



국내 최대의 겨울 스포츠 제전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가 1월13-18일 빙상 스피드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바이애슬론 혼성계주까지 이어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주시선수단은 지난 대회(159점)보다 36점이 향상된 195점을 획득하며 종합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체계적인 훈련 운영과 종목 전략 재정비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체육회는 2025년부터 빙상 쇼트트랙 생활체육 동호인 출전 확대, 컬링 중등부 신규 육성, 학교체육과의 연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동·하계 종목 간 연계 육성 시범 프로그램 일환으로 광주체육중 육상부 선수들을 컬링 종목에 전라적으로 전환한 결과

이번 체전에서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값진 메달을 따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동계스포츠는 여건상 불리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다. 우리는 광주가 가진 강점인 빙상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 상시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선수 지변을 넓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동계스포츠는 가능성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선수단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등 3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총 304점으로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특히, 금·은메달 증가와 다관왕 배출, 세대별 고른 활약은 전남 동계스포츠의 안정적인 선수



광주시체육회 동·하계 종목 간 연계 육성 시범 프로그램 일환으로 육성한 광주체육중컬링선수단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층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선수단 선전을 견인한 스키(크로스컨트리)다.

조다은(전남제고1)과 김찬우(화순초6)가 대회 4관왕, 이윤주(전남제중1)가 3관왕을 차지하며 전남 동계스포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바이애슬론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성적에 힘을 보탤다.

티모페이 랍신(전남도체육회)이 금메달 1개, 알렉산드르 스타로두베츠(전남체육회)가 은메달 1개, 랍신·스타로두베츠·김은호·이인복이 팀워크를 발휘한 계주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산악(아이스클라이밍)에 출전한 이영건(월출마당산악회)은 리드에서 금메달, 스피드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건재를 과시했다.

전남선수단은 스키와 바이애슬론을 중심으로 초·중·고·일반부 전 연령대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동계종목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입증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다관왕을 차지하며 전남선수단 선전을 견인한 조다은(왼쪽부터), 김찬우, 이윤주. <전남도체육회 제공>

특히, 유소년층의 두드러진 성장과 일반부의 안정된 전력이 맞물리며 향후 상위권 도약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금메달과 은메달 부문에서 소기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전남 동계스포츠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값진 대회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과 전략종목 집중 지원을 통해 전남 동계스포츠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3이닝 무실점’ 황동하, 위기 관리 ‘OK’

선발 등판 양현종, 2이닝 1실점
KIA, 연습경기 삼성전 8대3 승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우완 황동하가 ‘구역 투’를 펼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다소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지만 위기 관리 능력을 앞세워 실점 없이 임무를 마쳤다.

황동하는 2일 일본 오키나와 킨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서 3이닝 2피안타 3볼넷 1사구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다만 볼넷 3개와 사구 1개는 시즌을 앞두고 제구력 보완 과제를 남겼다.

지난달 21일 WBC 한국 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 2이닝 5피안타 1삼진 3실점(2자책)으로 부진했던 황동하는 이날도 매회 주자를 내보냈지만 끈질기게 버티는 투구가 돋보였다.

3회초 안타와 볼넷으로 1사 1,2루 위기에 몰렸지만 후속 타자들을 범타로 처리하며 실점을 막았다.

4회에도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준 뒤 중견수 플라야와 견제사로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다시 볼넷을 헌납하며 실점 위기를 맞았으나 외야플라이로 이닝을 끝냈다.

5회에도 1사 후 2루타를 허용했지만 팡블로 아웃카운트를 잡았고, 사구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4번 지명타자 김영웅을 헛스윙 삼진으로



2일 일본 오키나와 킨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온 황동하가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처리하며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KIA는 황동하의 역투를 앞세워 8-3으로 역전승하며 연습경기 첫 승을 누렸다.

선발투수 양현종은 2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1회는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지만, 2회 2루타 두 개를 맞으며 한 점을 내줬다.

볼펜도 점점을 이어갔다. 김현수가 1이닝 2실점, 한재승과 김범수가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9회 등판한 홍건희도 볼넷 3개로 난조를

보였으나 삼진 2개를 속내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KIA 타선도 모처럼 살아나며 15안타를 몰아쳤다. 박정우, 김규성, 한준수, 박민이 나란히 2안타를 기록하며 힘을 보탤고, 윤도현은 8회말 승부에 쐬기를 박는 스리런 홈런을 터뜨렸다.

연습경기 1승 2패를 거둔 KIA는 오는 5일 K T, 6일 LG를 상대로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른다. /주홍철기자



광주FC 문민서가 지난 1일 열린 제주 원정 개막전에서 제주 미드필더 이탈리아와 볼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수적 우세’ 광주, 아쉬운 무승부

제주 원정 개막전 0대0

이정규 감독 데뷔전을 치른 광주FC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FC는 지난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 ‘하나은행 K리그2 2026’ 원정 개막전에서 0-0으로 비겼다.

박정민과 최경록을 투입으로 내세운 광주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슈팅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 3분 박스 우측에서 때린 최경록 왼발 슈팅, 6분 문민서의 중거리 슈팅은 모두 빗나갔다.

오려려 전반 10분 골키퍼 김경민이 제주 공격수 신상승과 결합 도중 페널티 킥이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페널티킥이 취소되며 위기를 벗어났다.

팽팽한 경기 흐름에 변수가 생겼다. 제주 미드필더 이탈리아가 전반 30분 최경록의 정강이를 밟은 반칙으로 다이렉트 퇴장 당하

며 광주가 수적 우세를 점했다.

공격 주도권을 잡은 광주가 제주를 거세게 압박했다. 하승원이 전반 35분 왼발로 연속 슈팅을 시도했으나 첫 번째는 수비에게 막혔고, 두 번째는 높이 뒀다. 전반전 득점 없이 0-0으로 마쳤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안영규, 김진호를 투입해 수비와 측면에 변화를 줬고, 후반 17분 프리드론슨과 안혁주를 내세우며, 높이와 스피드에 힘을 실어줬다.

이정규 감독은 후반 35분 주세종을 투입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끝내 결정적인 한 방은 터지지 않았다.

수적 우위에도 제주 골문을 열지 못한 광주는 제주 원정 11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간 데 만족해야 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박희중기자



2일 열린 한신 타이거즈와의 평가전에서 3대3으로 뒤진 5회초 동점 솔로홈런을 터뜨린 김도영. /연합뉴스

‘김도영이 돌아왔다’

한신과 연습경기 홈런포에 멀티히트

야구대표팀 주축 내야수 김도영(KIA)이 20일 월드컵예선블클래식(WBC) 공식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때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도영은 2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 2026 WBC 연습경기 1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2-3으로 뒤진 5회초 1사에서 손맛을 봤다.

그는 상대 팀 세 번째 투수인 우완 하이카와 다이키를 상대로 가운데 몰린 초구를 공략해 좌중월 솔로 동점 홈런을 폭발했다.

김도영은 1회초 공격에서도 상대 팀 에이스 사이키 히로토를 공략해 3루 내야 안타를 뽑아내는 등 남다른 타격감을 선보였다.

지난 시즌 양쪽 햄스트링을 세 차례나 다친

김도영은 독기를 품고 재활에 전념, 최근 WBC 대표팀에 승선하며 부활을 알렸고, 지난 달 26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치는 등 국내 구단들과 5차례 연습경기에서 타율 0.333을 기록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표팀 류지현 감독은 첫 공식 연습경기에서 김도영에게 1번 타자 중책을 맡겼고, 김도영은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와 홈런포로 화답했다.

이날 대표팀은 한신과 경기에서 3-3으로 비겼다. 대표팀은 3일 정오 같은 장소에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른 뒤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체코를 상대로 WBC 조별리그 1차전 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박정환, 누적 상금 108억...이창호 넘어 역대 1위

세계 최고 상금 바둑대회인 세계기선전에서 초대 타이틀을 차지한 박정환(33) 9단이 역대 누적 상금 1위로 올라섰다.

한국기원은 2일 박정환이 통산 상금 108억4천62만원을 기록해 종전 이창호(60) 9단이 보유한 107억7천995만원을 넘어 역대 한국 프로기사 1위가 됐다고 밝혔다.

2006년 프로 입단한 박정환은 메이저 세계대회 6회 우승을 포함해 국내외 대회에서 통산 37차례 타이틀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끝난 제1회 신한은행 세계기선전 결승 3번기에서

중국의 신에 강자 왕상하오(21) 9단을 2-1로 파들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2021년 삼성화재배 이후 5년 만에 메이저 세계대회 정상에 오른 박정환은 우승상금 4억원을 획득해 이창호를 제치고 역대 1위가 됐다.

한편 74개월 연속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는 지난달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통산 상금 100억원을 돌파했다.

프로 입단 14년 만에 역대 3번째로 상금 100억원을 달성한 신진서는 박정환과 이창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연합뉴스